

“100년의 시간 여행”… 목포 문화유산 야행

18~20일까지 역사문화공간서
성옥기념관 연장 개방도
“100년의 시간을 이어갈 것”

7년 연속 국가유산청 문화유산 활용 사업으로 추진 중인 ‘2024 목포문화유산 야행(夜行)’이 오는 18일부터 3일간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일원에서 개최된다.

‘100년의 시간여행, 목포의 밤을 거닐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야행은 근대 목포 시민들의 삶과 희망찬 도약을 하고 있는 현재 목포를 표현한 무빙 샌드아트와 ‘야행-고백하기 좋은날’ 목포 시립합창단 창작 뮤지컬 개막공연으로 야행의 시작을 알린다.

근대역사관 2관은 개막공연을 포함해, 목포 무형유산 박방금, 안부덕과 제자들이 함께하는 ‘명창을 만나다’와 ‘품

바-날개없는 천사’ 연극공연, 목포의 춤명인 고(故) 우봉 이매방의 전통춤 공연 등이 진행된다.

경동성당에서는 ‘목포 근대 재즈콘서트’, 꿈의 오케스트라 공연, 춤과 재즈가 어우러진 ‘스윙재즈’ 공연 등이 진행되어 빛으로 채색된 경동성당과 어우러진 다채로운 공연들이 잊지 못할 가을밤을 선사할 예정이다.

옛 목포공립심상소학교강당에서는 국가무형유산인 옥(玉)장 장주원선생의 해설이 있는 옥공예 시연과 전시를 개최하고, 야외 무대에서는 가족 단위 관람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인형극 복춘사람들’ 공연과 다양한 체험존이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야행에는 성옥선생이 수집한 근·현대 작품과 고미술작품, 도자기 등도 함께 감상할 수 있도록 성옥기념관을 18일~19일 이틀간 연장 개방하

고, 기념관 잔디 마당에서도 전우용의 근대역사 토크콘서트와 ‘브리앙트’ 공연도 진행된다.

인근 옛 유달주유소 공터에는 근대거리를 찾은 관람객에게 독립영화를 감상하고 야행의 밤을 환하게 밝혀줄 조명과 포토존, 캠핑 체험장을 조성하여 휴식이 되는 공간도 마련됐다.

이외에도 시민과 지역 대학 등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화유산 야행을 만들어가고자 목포대, 목포과학대, 문화재단이 함께하는 다채로운 공연, 체험 등의 프로그램도 추가되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100년의 시간을 이어오고 있는 목포만의 문화유산의 가치를 되새기고 주민들이 함께 소통하며 즐길 수 있는 지속가능한 축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전문성 강화 워크숍 성료

목포시는 지난 15일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5년 중위소득 기준이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됨에 따라 맞춤형 급여 신청 및 복지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마련됐다. 또한, 생계 및 의료급여 등 사회복지 매뉴얼을 숙지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소하기 위해 진행됐다.

내일부터 대조기… 수위 5m 이상 상승·침수 피해 대비

목포시가 대조기인 18일부터 20일 오후 2시~5시 사이 바닷물 수위가 5.0m 이상(조석표상 10/19 최고 5.14m) 상승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목포시는 비상근무반을 편성하고 조위 상승에 따른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배수 펌프장, 배수갑문, 수문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안 저지대에는 현지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침수피해 예방에

참석자들은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여 놓치기 쉬운 복지서비스와 업무 협조 사항 등을 공유해 업무 이해도 및 복지 전문성 강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라며 큰 호응을 보였다.

박홍률목포시장은 “앞으로도 사회복지 업무 담당자들을 위한 교육과 소통의 자리를 자주 마련해 직원들의 역량을 키워 시민이 행복한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 어려운 이웃과 소통하는 공감 행정을 펼쳐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침수 경계 지역인 해안저지대에는 차량 주·정차로 인한 침수 피해가 예상되므로 저지대 차량 주차는 금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목포시는 바닷물 수위가 조석표상 조고 4.90m 이상일 경우 해수 위험일로 지정해 시민들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침수피해 예방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목포=정기찬 기자

목포해경, 수상레저기구 초보운항자 맞춤형 현장 교육

목포해양경찰(서장 권오성)은 수상레저기구 초보 운항자를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맞춤형 현장 교육을 실시한다.

16일 목포해양경찰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수상레저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교육내용으로는 △수상레저 일반현황 및 사고 사례와 예방법 △수상레저안전법 주요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수상레저안전법 분법시행에 따른 제도 변경사항 안내 △모바일 근거리 수상레저활동 자율신고 절차 안내 등이다. 목포=정기찬 기자

“국립목포대 의대 유치, 목포·신안 통합”

목포항구축제서 현안 사업 홍보

목포시는 목포항구축제 기간(11일~13일)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와 목포·신안 통합을 응원하는 홍보활동을 전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역의 34년 숙원 사업인 국립 목포대 의과대학 유치를 열망하는 마음과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목포·신안 통합 응원을 담은 메시지 작성 캠페인에 2261명의 도민들이 참여하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빈틈없이 빠곡한 응원 메시지판을 본 방문객들은 “목포대 의대유치, 반드시 이루어자. 목포·신안 통합으로 함께 잘살아 보시다” 등의 문구로 의대유치와 목포·신안 통합을 기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메시지판 위에 수놓았다.

이날 민간단체인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에서도 목포·신안 통합 홍보 안내문 배부와 함께 통합기원 팝콘 나눠주기 행사로 시민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그동안 목포시는 의대유치를 위해 국립 의과대학 신설 대정부 건의, 여·야 당대표



목포시가 항구축제에서 국립 목포대 의대 유치와 목포·신안 통합을 응원하는 홍보를 실시했다. 목포시 제공

면담, 목포대학교 국립의대 유치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대유치에 힘써왔다.

또한, 국립목포대 의대 신설을 위한 전남권 희망 피날레 걷기를 통해 섬 거주민, 노인, 농민, 어민 등 도민들을 찾아가 인터뷰하며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함께 국립 목포대 의대 신설을 지원하며 대외적 홍보에 앞장서 왔다.

목포·신안 통합사업에 있어서는 도농자매결연을 통한 농촌일손돕기, 이·미용

봉사, 김장나눔 등 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양시·군 간 통합 공감대 형성에 힘쓰고 있다. 최근에는 목포·신안 통합 효과 분석 공동 연구용역을 마치고 주민 설명회 및 통합의 긍정적 효과와 통합에 대한 오해와 사실을 바탕으로 통합 홍보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우리의 간절한 마음과 노력으로 국립목포대 의대유치와 목포·신안 통합을 이끌어내도록 총력을 다하겠다.” 목포=정기찬 기자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성인지 감수성 향상 활동

목포시여성친화도시시민참여단(단장 설순자)이 목포항구축제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활동을 추진했다.

설순자 단장을 비롯한 목포시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15명은 지난 13일 목포항구축제장에서 ‘청년과 함께하는 글로벌 파시 항구!’ 등을 관람하기 위해 찾은 많

은 관광객, 시민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높이기 낱말 맞추기’ 이벤트를 실시하며 많은 관심을 모았다.

이벤트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가진행된 ‘도자기 체험’도 큰 인기였다. 라면기, 접시, 미니컵, 머그컵 등 1000여점의 도자기에 직접 전사지를 붙이며, 나만의 도자

기를 만들어 가는 체험으로, 20~30명이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한편, 목포시는 시민참여단의 다양한 정책제안, 여성친화도시 인식 제고 홍보 활동, 도시 안전·환경 모니터링, 전남도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추진 등의 실적을 기반으로 여성가족부의 2024년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목포=정기찬 기자